

# 생성어휘부이론의특질구조와유형강제 -동사'하-'를중심으로-

임 서 현

서울대학교

ish97@snu.ac.kr

## 1. 머리말

본 논문은 언어의 창조적 사용의 예들을 화용론적 추론에 의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인 어휘들의 어휘의미구조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해석하게 됨을 설명하고자 한다.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은 언어의 창조적 사용과 다의성에 대하여 구성어휘들의 어휘의미구조와 문장 합성과정의 생성 메커니즘(예: 공동합성, 유형강제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필자는 생성어휘부 이론의 언어 사용에 대한 설명력을 수용하여 한국어의 동사 '하-'와 실체성 명사의 결합 등 언어의 창조적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더하여 생성어휘부 이론의 특질구조를 더 발전시키고 정밀화함으로써 어휘의미유형격자 (lexical semantic type lattice) 즉, 존재체계(ontology)내에서의 어휘의미와 언어의 창조적 사용에 관한 설명력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Jun(1999)과 Im & Lee (2002) 등의 선행연구가 있었다. 본 논문은 이들의 연구 중 특질구조와 유형강제에 관련된 연구를 좀 더 발전시켜 특질구조의 특성과 유형강제를 세밀히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동사 '하-'와 실체명사의 결합을 위주로 설명한다.

## 2. 통사론적 다형태성과 유형강제

동사 '하-'는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서술명사구를 논항으로 취하는 구성과 개체유형 명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구성 이 두 가지의 통사론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 (1) a. 철수는 피아노 연주를 한다.
- b. 철수는 피아노를 한다.

이러한 통사론적 다형태성은 각각 전달하는 의미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심층의 의미유형 (Deep Semantic Typing)은 동일하고, 그를 나타내는 통사론적 형태만 변이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Pustejovsky 1995, 2001). 한국어의 술어 '좋아하-'와 '하-'를 비교하여 보자. 동사 '좋아하-'는 태도동사(attitude verb)이므로, 영어의 *like*와 같이 모든 유형의 논항을 허가하는 술어이다<sup>1)</sup>.

- (2) a. 철수는 바이올린 연주를 좋아한다.
- b. 철수는 바이올린을 좋아한다.
- c. 철수는 바이올린 연주하기를 좋아한다.
- d. 철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 e. 철수는 영화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 f. 철수는 영화가 바이올린을 연주한 것을 좋아한다.

(2a, c, d, e)는 사건유형의 논항을 취한 예이고, (2f)는 명제유형의 논항을 취한 예이다. 물론 (2b)는 단순히 개체유형의 명사를 논항으로 취한 예이다. 이 때는 생략된 정보도 없고, 해석을 위해 다시 어떤 정보를 회복시켜야 할 필요도 없다. 단순히 철수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좋아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하-'는 '좋아하-'와는 다르다.

- (3) a. 철수는 피아노 연주를 한다.
- b. 철수는 피아노를 한다.
- c. ?철수는 피아노 연주하기를 한다.
- d. ??철수는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한다.
- e. \*철수는 영화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한다.
- f. \*철수는 영화가 피아노를 연주한 것을 한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동사 '하-'는 모든 개체유형명사와 결합을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체유형명사와의 결합을 해석하기 위해 관련된 어떤 술어정보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좋아하-'와는 선택제약이 다르다. (3b)의 '피아노를 하-'는 '피아노'의 의미와 '하-'의 의미의 단순 합성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b)를 우리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이 문장이 '철수는 (전공/직업으로) 피아노 연주를 한다'라

---

1) 한국어의 '즐거-'는 어떤 일을 즐겨한다는 의미와 어떤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같이 있는 술어라서 영어의 *enjoy*보다는 *like*에 가까운 술어로 보인다.

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개체유형 명사 '피아노'의 특질구조로부터 도출한 술어정보이다. 한국어에서 동사 '하-'는 사건유형의 논항을 전형적으로 취하고, 일부 유형강제가 가능한 개체유형 명사만 논항으로 삼을 수 있다. 유형강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유형강제: 유형 충돌(type error)을 막기 위해 술어가 자신의 논항의 의미유형을 술어가 요구하는 유형으로 전환하는 의미론적 작용.

다시 말해, 유형강제는 어떤 논항을 지배하는 술어가 자신의 선택제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의미유형을 강제하여 유형전이(type shifting)를 시키는 것이다. 이제 유형강제의 예를 보자. 상동사(aspectual verb)인 '시작하-'는 자신의 특성으로 인해 사건유형의 표현을 목적어 논항으로 갖는 동사이다. 특히 '시작하-'는 행위나 완성사건의 지시표현을 논항으로 취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체를 지시하는 표현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논항으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 - 특히 행위나 완성사건 - 을 나타내는 서술명사구는 자연스럽게 '시작하-'와 결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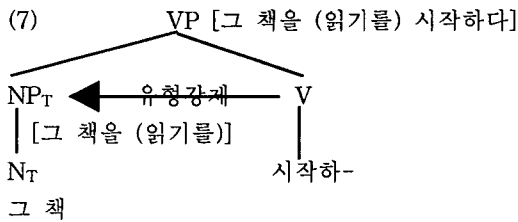
- (5) a. ??그는 바위를 시작했다  
 b. 그는 한국인의 체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위의 예들은 '시작하-'의 논항선택제약을 보이는 예문들이다. 개체를 지시하는 '바위'는 '시작하-'와 결합하기 어렵다. 그러나 '연구'와 같은 서술명사는 행위를 지시하므로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 제약을 갖고 있음에도 일부 개체유형 명사는 '시작하-'와 결합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 (6) a. 철수는 한 시간 전에 그 책을 시작했다.  
 b. 책  
 논항구조 =  $x \cdot y$  = 물리적 대상 · 정보  
 특질구조  
 형상역 =  $x \cdot y$   
 구성역 = -가\_-를\_포함하고\_있다( $x, y$ )  
 기능역 = 직접기능역 = -를\_읽다( $x \cdot y$ )  
 작인역 = -를\_쓰다( $x \cdot y$ )

'책'은 개체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와 결합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우리는 단순히 '책'이라는 개체로 해석하지 않고, 생략되어 있는 술어 '읽-' 혹은 '쓰-'를 동원하여 (6a)를 '철수는 한 시간 전에 그 책을 읽기를 시작했다'로 해석한다. 물론 '철수는 한 시간 전에 그 책을 쓰기를 시작했다'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sup>2)</sup>. 이렇게 생략된 술어정보를 도출하여 사건유형으로 의미해석이 되는 것은 상동사 '시작하-'가 자신의 논항 선택제약에 맞게 사건유형으로 유형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생략된 술어 정보를 도출하여 사건유형으로 유형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책'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읽기'와 '쓰기'이고 이 정보가 '책'의 어휘의미정보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유형강제를 형식화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이 '책'의 기능역 정보를 취하여 상동사 '시작하-'는 개체유형의 논항을 사건유형의 논항으로 유형강제한다<sup>3)</sup>. 이제 유형강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특질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명사의 특질구조

2) (6a)의 경우 '쓰기'보다는 '읽기'로 더 먼저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그러나 주어의 정보가 좀더 구체적이면 '쓰기'의 의미로 더 먼저 해석될 수도 있다.

(1) 그 작가는 그 책을 한 달 전에 시작했다.

위의 예와 같은 경우 주어에 '작가'라는 단어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쓰기'의 의미로 더 먼저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읽기' 해석이 더 선호되는 것 같다.

3) 이러한 유형강제는 논항 명사의 특질구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유형강제를 하는 술어와 이 논항의 특질구조 정보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일부 개체유형 명사만이 유형강제를 받아 '시작하-'와 같은 유형강제 동사들의 논항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Lee, Chungmin & Im, Seohyun (2003) 참조.

### 3.1. 특질구조의 구성

특질구조는 어휘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로서 실질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유용한 어휘의미구조이다. 특질구조가 함의하는 바는 어휘의 원자론(atomism, Fodor & Lepore 1996)에 반대하고, 어휘의 의미는 추론관계에 의한 하위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생성어휘부 이론은 언어지식(linguistic knowledge)과 세상지식(world knowledge) 즉, 어휘의 사전적 의미와 백과사전적 의미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일부 인지언어학자들의 견해도 반대한다.

Pustejovsky(2001)는 어휘의미는 전통적인 방식의 사전도 아니지만, 또한 모든 데이터를 다 포함시킨 창고와 같은 정보구조도 아니라고 지적한다. 어휘의미구조는 복잡하고, 동적이지만 일관된 지식체계로 문장 의미를 만들어내는 합성을 잘 설명하는 정보구조이어야 한다. 이는 어휘의미구조가 언어의 창조적인 사용을 잘 설명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어휘의미구조에 모든 가능한 정보를 다 담는 방식은 아니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휘의미구조 특히 특질구조에 들어가는 정보는 일정한 한계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커피'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사전적 정보와 백과사전적 정보 기술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 (8) 커피 [연세 한국어 사전]

① 독특한 향기가 나며 볶아 갈아서 물에 끓여 차로 마시는, 카페인이 들어 있는 커피나무 열매, 또는 그 가루.

② 커피로 만든 차

#### (9) 커피 [파스칼 백과사전]

커피나무 열매의 종자인 커피원두를 원료로 한 기호음료.

음용, 재배, 역사, 종류와 특징, 성분, 생산과 소비, 처리, 추출 방법과 기구, 음용방법 등

백과사전에는 커피에 관한 간단한 기술 외에도 커피의 역사, 성분, 처리, 추출방법 등 많은 정보들이 모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언어학적으로 '커피'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성어휘부 이론은 언어의 창조적 사용을 설명하고 어휘들의 합성을 통한 문장 구성의 의미를 어떻게 제대로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자체의 동기로 갖고 있는 이론이다. 따라서 어휘의미구조는 통사론, 의미론을 포함한 언어학적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특질구조를 기술한다.

- (10) a. 다른 어휘들과의 관계 즉, 반의어, 동의어, 상위어, 하위어 등  
 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b. 다른 어휘들과의 공기제약 (co-occurrence constraint) 즉,  
 의미선택제약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먼저 어휘 존재체계(ontology)내에서 다른 어휘들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  
 자. 존재체계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많이 언급되어 왔듯이 하나의 어휘  
 항목은 자신의 상위어와 하위어를 가질 수 있고, 반의어와 유의어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들이 격자(lattice)를 구성하는 것이 의미유형격자이다.  
 즉, '맥주'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맥주가 술의 한 종류이며, 그  
 것은 소주나 막걸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어휘  
 의 의미는 그 어휘가 상위어의 의미정보를 계승하고, 다른 어휘가 갖는 의  
 미와 차이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은 ~이다”와 “~은 ~이  
 아니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보이다. '맥주'와 '소주'는 같은  
 술이지만,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특질구조가  
 기술되어야 한다.

(11) 맥주

논항구조 = 논항1 = x: 술  
 특질구조  
 구성역 = -가\_의\_원료(보리엿기름&홉, x)  
 -가\_의\_구성성분(알코올, x)  
 작인역 = -를\_발효시켜\_-를\_만들다(보리엿기름&홉, x)

(12) 소주

논항구조 = 논항1 = x: 술  
 특질구조  
 구성역 = -가\_의\_원료(알코올, x)|-가\_의\_원료(곡류, x)  
 -가\_의\_구성성분(알코올, x)  
 작인역 = -를\_희석시켜\_-를\_만들다(알코올, x)  
 -를\_발효시켜\_-를\_만들다(곡류, x)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주'와 '맥주'는 구성역과 작인역에 차이가 있다.  
 또, 만드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구분은 구성역과  
 작인역으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술  
 이라는 점에서 '술'의 특질구조 정보를 상속받아 공통점을 갖지만, 각각 특

질구조의 정보에 차이가 있으므로 하여 그 의미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의미유형격자 내에서 상위어로부터 정보를 상속받으면서도 구체적인 특질구조상의 정보의 차이가 단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둘째로, 술어와의 공기제약 (co-occurrence restriction)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sup>4)</sup>. 다음 예문들은 '맥주'가 사용된 예들이다.

- (13) a. 나는 맥주를 마시고 / 들이키고 있었다. / \*씹고 있었다.  
 b. 맥주 여섯 캔 / 한잔 / \*한 자루  
 c. 그 사나이는 맥주를 좋아했다.  
 d. 우리 저기 가서 맥주나 (한잔) 하자

위의 예들은 일련의 술어들과 공기되고 있는데 이 술어들은 각각 '맥주'의 특질구조 정보중 어느 하나와 연결되는 술어들이다. 맥주는 음료이기 때문에 '마시-', '들이키-'와 같은 동사가 결합할 수 있다. 또한 '캔', '병', '잔' 등의 분류사도 음료에 쓰이는 분류사이므로 '맥주'와 결합한다. '좋아하-'는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유형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보어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맥주'와 결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동사 '하-'의 경우는 이 논문의 주제인 유형강제를 하는 동사이고, '맥주'의 특질구조에 근거하여 생략된 정보 - 마시기 -를 다시 복원할 수 있으므로 '맥주'와 '하-'의 결합은 유형강제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휘의 특질구조는 공기제약과 어휘 의미유형격자 내에서 다른 어휘들과의 관계를 꼭 필요하게 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3.2. 어휘 의미유형 분류

생성어휘부 이론에 따른 어휘의미유형은 개체(entity), 질(quality), 사건(event) 영역(domain)으로 구분되고, 각 영역마다 특질구조의 정보 이용 방식에 따라 자연유형(natural type), 기능유형(functional type), 복합유형(complex type)으로 구분된다(Pustejovsky, 2001). 또한 어휘의미격자 내에서 의미정보 계승을 하는 방식에 따라 단순유형, 통합유형, 복합유형이라는 분류방식을 도입한다(Pustejovsky 1995, Busa, et al. 2001).

- (14) a. 자연유형(natural type): 형상역과 구성역에 의한 기술  
 b. 기능유형(functional type): 기능역과 작인역에 의한 기술

4) 이러한 공기제약은 선택제약(selection restriction)이며, 이를 선호(preference), 혹은 예측(expectation)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c. 복합유형(complex type): Dot Object<sup>5)</sup> 구성에 의한  
데카르트적 유형

(15) a. 단순유형(simple type): 분류학(taxonomy)에 근거한 기술

b. 통합유형(unified type):

다중 계승(multiple inheritance)에 의한 의미기술

c. 복합유형 (complex type):

일정한 관계를 갖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어휘  
의미기술 (Pustejovsky 1995, etc.)

위와 같은 분류를 종합하여 한국어 명사의 어휘의미구조의 예들을 제시하  
도록 한다.

(16) 늑대 \_ 단순유형

논항구조 = 논항1 = x: 포유동물

특질구조

형상역 = -이다 (x)

구성역 = ...

기능역 =  $\emptyset$

작인역 =  $\emptyset$

'늑대'는 분류학적으로 개과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지시한다. 따라서 자연유  
형이며, 단순유형의 어휘이다. 그러나 다음으로 제시하는 '돼지'는 같은 포  
유동물이지만, 가축용으로 길러 식용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늑대'와는 차이  
가 있다.

(17) 돼지 \_ 통합유형

논항구조 = 논항1 = x: [포유동물\_가축\_식용동물]

특질구조

형상역 = -이다 (x)

구성역 = ...

기능역 = -의 고기를\_먹다 (x)

작인역 = -를\_기르다 (x)

'돼지'는 분류학적으로 포유동물에 속하는 자연물이지만, 이것이 가축으로

---

5) Pustejovsky(1995)



길러진다는 점에서 작인역의 의미가 부가되고, 식용으로 쓰인다는 점에서는 기능역의 의미가 부가된다. 따라서 다중계승에 의해 그 어휘개념유형은 [포유동물\_가축\_식용동물]이 된다. 이 어휘의미는 단순유형이 아니라 통합유형이다. 통합유형을 기술하기 위해 '\_'를 그 기호로 쓴다. 그러므로 '돼지'는 기능유형이며, 통합유형이다. 다음으로 복합유형의 예를 보자.

(18) 우유 \_ 복합유형

논항구조 = 논항1 =  $x \cdot y$ : [액체\_천연물가공품\_음료]

특질구조

형상역 = -이다( $x \cdot y$ )

구성역 = -가\_-의\_원료( $x, y$ )

기능역 = 직접기능역 = -를\_마시다( $x \cdot y$ )

작인역 = 1차 작인역 = -가\_-를\_분비하다(소,  $x$ )

2차 작인역 = -를\_가공하다( $x$ )

'우유'는 소젖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먹는 우유는 그 소젖을 가공한 가공품이다. 따라서 우유는 소젖과 그것을 가공한 제품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리고 그 둘은 소젖이 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유를 복합유형으로 설명한다<sup>6)</sup>. 반면, '젖'은 가공되지 않기 때문에 복합유형으로 기술되지 않는다.

(19) 젖 \_ 통합유형

논항구조 = 논항1 =  $x$ : [액체\_먹이]

특질구조

형상역 =  $x$

구성역 = ...

기능역 = -가\_-를\_먹다(포유동물의 새끼,  $x$ )

작인역 = -가\_-를\_분비하다(포유동물,  $x$ )

이와 같이 어휘개념유형은 자연유형, 기능유형, 복합유형으로 분류되고, 또한 정보결합방식에 따라서 단순유형, 통합유형, 복합유형으로 나뉜다. 다음 절에서는 기능역이나 작인역이 한가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고 복합구조화될 수 있음을 보인다.

---

6)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가공한 우유는 시유라 하고 가공전의 우유는 원유라 한다.

### 3.3. 특질구조의 확장

Pustejovsky (1995: p. 99)는 기능역을 직접 기능역(direct telic)과 목적 기능역(purpose telic)으로 분류하여 직접 기능역은 어휘의 지시체가 기능역 술어의 대상(object)이 되는 예들을 기술하였고, 목적 기능역은 사용되는 목적을 기술하는 것으로 특히 주어와 도구격의 의미역할(thematic role) 교체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설명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하여 기능역과 작인역을 확대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기능역과 작인역의 확장만을 다루므로 기능역과 작인역만을 기술한다. 먼저 직접기능역만을 갖는 경우를 보자.

#### (20) 돼지

논항구조 = 논항1 = x: [포유동물\_가축\_식용동물]  
 특질구조  
 기능역 = 직접기능역 = -고기를\_먹다(x)

위에서 보듯이 '돼지'는 직접기능역을 갖는다. 반면, 다음을 보자.

- (21) a. 지현이가 세탁기로 빨래를 하고 있다.  
 b. 세탁기가 빨래를 한다.

#### (22) 세탁기

논항구조 = 논항1 = x: [물리적대상\_인공물\_도구]  
 당연논항2 = y: 세탁물  
 특질구조  
 기능역 = 간접기능역 = -가\_-를\_세탁하다(x, y)

'세탁기'는 빨래를 빨기 위한 도구이다. 도구격 조사 '-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세탁기' 자체가 주어가 될 수도 있는 교체현상을 보인다<sup>7)</sup>. 그러나 세탁기 자체가 대상이 되는 사건은 작인역에 기술한 세탁기를 만드는 것 말고는 없다. 따라서 직접기능역은 기술할 수 없다. 그러나 세탁기가 어떤 인간의 사용목적에 분명히 가지므로 Pustejovsky (1995)의 목적기능역에 해당하는 의미정보가 특질구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목적기능역이라

7) 한국어의 경우 영어만큼 교체현상이 자연스럽게는 않으며, 도구의 의인화를 통해 주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는 개념이 이 부류에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므로<sup>8)</sup> 의미역할 교체현상을 고려하여 간접기능역(indirect telic)을 설정한다.

직접기능역이 없는 어휘들 가운데에는 '세탁기'와 달리 교체현상을 보이지 않는 어휘들도 있다. 예를 들어 '책상'은 책을 읽거나 글씨를 쓰기 위한 상을 가리킨다. 이 때 '책상'은 어떤 용도를 갖는 인공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자신이 직접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직접기능역을 갖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세탁기'처럼 교체현상을 보이지도 않으므로 간접기능역이라고 할 수도 없다. 도구의 작용이 대상에 미치지 않고 교체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사용목적이 있는 어휘들의 경우에 이를 참여기능역으로 설정한다<sup>9)</sup>. 이제 '책상'의 특질구조를 기술하여 보자.

(23) 책상

논항구조 = 논항1 = x: [물리적대상\_인공물\_도구]

특질구조

기능역 = 참여기능역 = -가\_책을\_읽거나\_글씨를\_쓰는데\_사용(x)

'책상'은 직접기능역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참여기능역이 있을 뿐이다. 반면 '목걸이'의 경우는 직접기능역이 있지만, 교체현상이 없으므로 참여기능역을 제시한 예이다.

(24) 목걸이

논항구조 = 논항1 = x: [물리적대상\_인공물\_장식품]

특질구조

기능역 = 직접기능역 = -를\_착용하다(x)

참여기능역 = -로\_몸치장을\_하다(x)

목걸이는 목에 거는 것이지만, 그 목적이 몸에 장식을 하는 것으로 장식품의 일종이다. 따라서 참여기능역과 직접기능역을 모두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피아노'는 우선 직접기능역과 간접기능역이 모두 있는 예이다.

8) Busa, Calzolari, & Lenci (2001)은 직접기능역 외의 사용목적이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어휘 모두를 포함하여 Used\_for의 의미로 목적기능역을 사용하였지만, 교체현상이라는 통사론적 현상을 보이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9) Pustejovsky (1995)는 목적기능역을 설정하였는데 본 논문은 목적기능역을 구분하면서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간접기능역과 참여기능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5) 피아노

논항구조 = 논항1 = x: [물리적대상\_인공물\_악기]

특질구조

기능역 = 직접기능역 = -를\_치다 | 연주하다(x)

간접기능역 = -가\_-를\_연주하다(x, 음악)

이제 작인역의 확장을 보자. 여기서는 작인역의 확장을 설명하므로 작인역만을 기술하겠다.

(26) 고등어

논항구조 = 논항1 = x: [물고기\_음식재료]

특질구조

작인역 = \_를\_어획하다 (x)

고등어는 자연물인데 재해석되어 기능역과 작인역이 추가되면서 통합유형이 된 예들이다. 작인역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휘들이 있다.

(27) 담배

논항구조 = 논항1 = x • y = [식물\_원료] • [물리적대상\_가공품]

당연논항2 = z: 사람

특질구조

작인역 = 1차작인역 = -를\_재배하다(x)

2차작인역 = -를\_가공하다(x)

담배는 원래 식물의 일종이므로 우리가 피우는 담배가 되기까지는 일차적으로 담배를 재배하고, 재배해서 말린 담뱃잎을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 '담배'라는 어휘는 식물 담배를 가리키기도 하고, 재배한 담배를 지칭하기도 하며, 가공되어 피울 수 있도록 된 담배를 가리키기도 한다. 다시 말해 '담배'는 다의어(polysemy)이다. 이를 복합유형으로 설정하여 술어가 자신에게 맞는 의미를 선택하도록 '담배'의 어휘의미구조를 기술하였다. 담배의 탄생과정은 1차적으로 재배를 하고 2차적으로 그 재배한 담배를 가공하는 것이므로 작인역을 2개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모든 가공품은 이러한 방식의 기술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기능역과 작인역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8) 확장된 특질구조

A. 기능역

a. 직접기능역

어휘의 지시체가 기능역에 제시된 술어가 지시하는 사건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경우

(전형적으로 기능역 술어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b. 간접기능역

어휘의 지시체가 기능역에 제시된 술어가 지시하는 사건을 위해 사용되는 것들 중 논항교체가 되는 경우 즉,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구, 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c. 참여기능역

어휘의 지시체가 기능역에 제시된 술어가 지시하는 사건을 위해 사용되지만 논항교체가 안 되는 경우.

(사용목적이 있는 모든 인공물중 b를 제외한 나머지 어휘들이 해당한다.)

B. 작인역

어휘의 지시체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과 관련된 사건들을 1차, 2차 작인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질구조를 세분화하여 기술함으로써 어휘의 의미를 잘 정의할 수 있고, 언어현상에 대한 설명의 가능성도 확대된다.

#### 4. 유형강제의 분류

유형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생략된 술어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은 모두 동일하지 않다. 어떤 경우는 작인역 정보에 근거하여 유형강제를 하고 어떤 경우는 기능역 정보에 근거한다. 때로는 특질구조 내의 술어의 특질구조를 요구하는 복합구조를 통해 유형강제를 하기도 한다. 이를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3장에서 우리는 Pustejovsky(1995)의 특질구조를 확장하여 기능역과 작인역을 더 세분한 바 있다. 먼저 유형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술어정보의 도출을 1차작인역에 의존하는 예를 보자.

(29) a. 우리 마을은 담배를 합니다.

b. 담배

논항구조 = 논항1 =  $x \cdot y$  = [식물\_원료] • [물리적대상\_가공품]

특질구조

기능역 = 직접기능역 = -를\_피우다( $x \cdot y$ )

작인역 = 1차작인역 = -를\_재배하다(x)

2차작인역 = -를\_가공하다(x)

(29a)의 문장은 '우리 마을은 담배 재배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2차작인역인 '가공'보다는 1차작인역인 '재배'를 유형강제에 필요한 술어정보로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담배'의 예처럼 동사 '하-'가 1차작인역에 근거하여 유형강제를 하는 경우는 주로 '농사'나 '재배'와 관련된 경우이다.

(30) a. 우리 화원은 장미를 합니다.

b. 우리 마을은 참외를 합니다.

c. 우리 마을은 고추를 합니다.

다음 예는 위와 같이 작인역이 세분화되지 않는 경우이다.

(31) a. 어머니는 밥을 하고 계십니다.

b. 밥

논항구조 = x: 음식

특질구조

형상역 = x

구성역 = -가\_의\_재료(곡물, x)

기능역 = 직접기능역 = -를\_먹다(x)

작인역 = -로\_를\_짓다/만들다(곡물, x)

위의 예에서 (31a)는 '어머니는 밥을 짓고 계신다'는 의미이다. 이 때 밥을 짓는다는 행위에 대한 정보는 '밥'의 특질구조 특히 작인역 정보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는 작인역이 1차 또는 2차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음은 작인역에 의해 유형강제를 하는 예들이다.

(32) a. 어머니는 밥을 하고 계십니다.

b. 우리 비빔밥 해 먹을까?

c. 철수는 산에 나무 하러 갔어요.

위의 예에서 (32c)는 음식의 종류로 대부분의 음식 종류는 작인역에 의한 유형강제를 하는 예들이다. 그러나 (32c)의 '나무를 하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

(33) a. 철수는 산에 나무 하러 갔어요.

b. 나무

논항구조 = x: 물리적대상\_인공물\_떨감

특질구조

형상역 = x

구성역 = ...

기능역 = 직접기능역 = -를\_때다(x)

참여기능역 = -를\_떨감으로\_쓰다(x)

작인역 = -를\_모아\_떨감으로\_만들다(x)

위의 경우 '나무'는 '떨나무'의 약자로 떨감으로 쓰이는 나무를 말한다. 즉, 자연유형인 '나무'가 사용목적에 맞게 됨에 따라 기능유형으로 전이된 경우이다. 이 때 '나무를 하-'는 나무를 모아서 떨감으로 준비하는 행위를 지시하므로 동사 '하-'는 기능유형인 '나무'의 작인역 정보를 이용하여 유형강제를 한 예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능역 정보에 의한 유형강제의 예를 살펴보자. 필자는 기능역을 직접기능역, 간접기능역, 참여기능역으로 나누었다. 기능역 정보에 근거한 유형강제도 이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33) a. 우리 커피 한잔 하자.

b. 커피<sup>10)</sup>

논항구조 = x: 음료

특질구조

형상역 = x

구성역 = -가\_-의\_원료(커피나무 열매, x)

기능역 = 직접기능역 = -를\_마시다(x)

작인역 = -로\_-를\_만들다(커피나무 열매, x)

---

10)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커피'는 커피나무 재배에서부터 음료로 사용된 커피까지 모두를 커피라고 지칭하는 총칭적 개념이기 때문에 기술하기가 매우 복잡하다. 여기서는 음료로만 가정하고 특질구조를 기술하도록 하겠다.

(33a)는 '우리 커피 한잔 마시자'는 의미이다. 이 때 '마시기'라는 행위를 지시하는 정보는 '커피'의 특질구조 내에 있는 직접기능역 정보이다. 즉, '커피 한잔 하다'는 '커피'의 직접기능역에 근거한 유형강제이다. 다음은 직접기능역에 근거해 유형강제를 하는 예들이다.

- (34) a. 우리 커피 한잔 하자.  
 b. 우리 담배 한대 할까?  
 c. 내 동생은 오늘 마스크라를 했다  
 d. 아버지는 오늘 허리띠 대신 멜빵을 했다  
 e. 우리 어머니는 오늘 스카프를 하셨습니다.

반면, 직접기능역이 없고, 간접기능역이나 참여기능역만을 갖는 명사들은 유형강제를 허락하지 않는다.

- (35) a. \*철수는 세탁기를 하고 있다.  
 b. 세탁기  
 논항구조 = 논항1 = x: [물리적대상\_인공물\_도구]  
 당연논항2 = y: 세탁물  
 특질구조  
 형상역 = x  
 구성역 = ...  
 기능역 = 간접기능역 = -가\_-를\_세탁하다(x, y)  
 작인역 = -를\_만들다(x)

'세탁기'는 직접기능역이 없고 간접기능역만을 갖는 명사이다. 이 경우에 동사 '하-'의 유형강제를 받지 못한다. 다음으로 참여기능역만을 갖는 명사도 동사 '하-'의 유형강제를 받지 못한다.

- (36) a. \*철수는 책상을 한다.  
 b. 책상  
 논항구조 = 논항1 = x: [물리적대상\_인공물\_도구]  
 특질구조  
 형상역 = x  
 구성역 = ...  
 기능역 = 참여기능역 = -가\_책을\_읽거나\_글씨를\_쓰는데\_사용(x)



작인역 = -를\_만들다(x)

'책상'은 직접기능역과 간접기능역이 없고 참여기능역만을 갖는 경우이다. 따라서 '책상'은 동사 '하-'의 유형강제를 받지 못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유형들을 보면, 직접기능역을 갖지 못한 실체명사들은 동사 '하-'의 유형강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즐기-'는 동사 '하-'와는 달리 이 경우도 유형강제를 한다. 다음 예를 보자.

- (37) a. 철수는 세탁기를 즐긴다.
- b. 철수는 책상을 즐긴다.

동사 '하-'처럼 '즐기-'도 사건유형의 논항을 취하는 동사이다. 위의 예에서도 세탁기나 책상 자체를 즐긴다는 의미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즐기-'의 경우 동사 '하-'처럼 생략된 술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사건의 종류를 허락하는 폭이 더 넓다. 그러므로 동사 '즐기-'는 동사 '하-'보다 유형강제를 하는 폭이 훨씬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실체명사의 특질구조 술어 자체의 특질구조까지 이용하는 복합구조를 근거로 유형강제를 하는 예가 있다. 다음을 보자.

(38) a. 철수의 아버지는 택시를 하십니다.

b. 택시

논항구조 = 논항1 = x: 탈것[물리적대상\_교통수단]

당연논항2 = y: 사람

특질구조

형상역 = x

구성역 = -가\_-의\_부분 (네바퀴, 엔진,..., x)

기능역1 = 직접기능역 = -가\_-를(에)\_타다(y, x)

간접기능역 = -가\_-을\_나르다(x, y)

기능역2 = 직접\_기능역 = -를\_운전하다(x)

운전(x: 택시)

사건구조 = 사건1 = e1: 과정

당연사건2 = e2: 과정

특질구조

기능역 = -으로\_생계유지(e1)

작인역 = 형상역 = 운전(e1, x)

작인역 = 운전능력습득(e2, y)

참여\_기능역 = -로\_영업을\_하다(x)

작인역 = -를\_만들다(x)

'택시'의 직접 기능역은 손님 입장에서는 타기 위한 것이고, 운전사의 입장에서는 운전하는 것이지만, 손님은 이동을 위하여 택시를 타고, 운전사는 돈을 벌기 위해 직업으로서 택시 운전을 한다. 택시의 경우 기능역이 두 가지이다. 따라서 동사 '하-'가 기능역2의 술어정보를 택하여 유형강제를 하게 된다. 이 때 그 의미는 철수가 택시를 운전한다는 의미만으로 그치지 않고, 택시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위한 돈을 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이유는 '택시운전'의 목적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이라는 정보를 취하기 때문이다<sup>11)</sup>. 이렇게 '택시'의 기능역 술어인 '운전'을 포함한 '택시운전'이 직업의 일종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는 단순히 '택시'의 특질구조만으로 유형강제가 설명되지 않고, '택시'의 특질구조에 있는 술어의 특질구조까지 동원되는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피아노를 하다'도 '피아노 연주'가 전공 혹은 직업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동사 '하-'의 유형강제를 설명할 수 있겠다. 유형강제의 근거가 직

11) 반면, '택시운전'이라는 활동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와는 별도로 택시는 애초에 영업용으로 만든 차이므로 택시의 존재목적으로서 영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택시회사를 운영하면서 택시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포함한다.

접적인 것이든 좀더 복잡한 것이든 생성 메커니즘을 통해 동사구의 의미 해석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 (39) a. 우리 동생은 피아노를 합니다.  
b. 우리 아버지는 택시를 하세요.  
c. 철수 아버지는 우리 동네에서 세탁소를 하십니다.  
d. 저는 평균대를 합니다.

위의 예들은 이중적인 복합특질구조를 이용하여 유형강제를 하는 예들이다. 이 경우에는 단계층위 해석보다는 개체층위 해석이 일차적인데 이는 물론 화제표지 '-는'과 현재시제를 사용한 효과도 있지만, 특질구조의 술어와 동사 '하-'의 결합이 직업이나 전공의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개체층위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점이 있다. 4장에서는 확장된 특질구조를 바탕으로 동사 '하-'의 유형강제를 분류하였다.

## 5. 결론

본 논문은 언어의 창조적 사용의 한 예로서 개체유형의 명사를 사건 유형으로 유형강제하는 예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단순히 상식적, 세상지식에 근거한 화용론적 추론이라고 취급되었던 언어사용의 예들을 어휘의미에 근거한 합성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유형강제는 술어의 논항 선택제약과 논항으로 쓰인 명사의 특질구조 정보가 조화되었을 때 가능하다.

2장에서는 이러한 유형강제의 대표적인 예를 보임으로써 유형강제를 설명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유형충돌로 보이는 경우라도 기저의 의미유형이 한가지이고 통사론적으로만 다형태성을 띠는 경우 유형강제를 통해 술어가 자신의 선택제약에 맞게 유형을 전이시킨다. 이러한 유형강제에는 필수적으로 특질구조가 사용될 뿐 아니라 어휘의 특질구조는 어휘 존재체계 내에서 어휘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구조이므로 그 구조를 잘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3장에서는 특질구조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질구조는 어휘 의미유형격자 내에서 다른 어휘들과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언어사용에서 공기제약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특질구조 기술을 위해 먼저 어휘의미유형을 Pustejovsky(1995, 2001, etc.)를 따라 자연유형, 기능유형, 복합유형으로 나누고, 또 의미정보 결합방식에 따라 단순유형, 통합유형, 복합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어휘들을 이 유형들로 분석하였다. 특히 3.3에서

는 특질구조가 어휘의미를 더 잘 기술하기 위해서는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기능역을 직접기능역, 간접기능역, 참여기능역으로 나누었다. 또한 작인역도 인공물의 탄생과정에 따라 1차, 2차 작인역으로 세분화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4장에서는 이렇게 확장된 특질구조를 토대로 유형강제의 종류를 분류하였다. 1차작인역에 의한 유형강제와 세분화되지 않은 작인역에 의한 유형강제, 또, 직접기능역에 의한 유형강제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반면, 직접기능역이 없고, 간접기능역과 참여기능역만 있는 어휘들은 동사 '하-'에 의한 유형강제가 불가능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택시를 하다'처럼 복합구조에 의한 유형강제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은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 특히 특질구조와 유형강제가 어휘 의미 기술과 언어의 창조적 사용에 대하여 잘 설명할 수 있음을 한국어 동사 '하-'의 유형강제를 통해 보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이 동사 '하-'의 의미뿐 아니라 어휘의미론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영희. 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탐출판사. 서울.
- 서정수. 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서울.
- 이운영. 2004. 한국어 명사의 다의적 해석: 생성어휘부 이론에 입각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정민 외. 2000.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도서출판 소화. 서울.
- 채희락. 1996. "'하-'의 특성과 경술어 구문". 어학연구. 32-3.
- 최경봉. 1997. "명사의 의미구조 기술과 의미해석". 국어국문학 118.
- 홍재성. 1997. "술어명사 사전과 '-이다' 술어 명사 구문의 기술". 한글학회. 6회 국제한국어 학술대회 발표문.
- Bouillon, P. and F. Busa. 2001. "Qualia and the Structuring of Verb Meaning," in eds. Bouillon, P. & F. Busa. The Language of Word Meaning. Cambridge Univ. Press.
- Busa, F., Calzolari, Nicoletta, and Lenci, Alessandro. 2001. "Generative Lexicon and the SIMPLE Model: Developing Semantic Resources for NLP," in eds. Pierrette Bouillon and F. Busa The Language of Word Mea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ve V. Clark & Herbert H. Clark. 1979. "When Nouns Surface as Verbs," Language 55/4.
- Fodor, Jerry, A., and Lepore, Ernie. 1998. "The Emptiness of the Lexicon: Critical Reflections on J. Pustejovsky's "The Generative

- Lexicon". *Linguistic Inquiry* 29.
- Im, Seohyun and Lee, Chungmin 2002. "Type Construction of Nouns with the Verb *ha-* 'do'," in the Proceedings of the 16th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Jeju. Korea.
- Jayez, J. 2001. "Underspecification, Context Selection, and Generativity," in eds., Bouillon, P. & F. Busa. *The Language of Word Meaning*. Cambridge Univ. Press.
- Jun, Jong-Sup. 2001. "Semantic Co-Composition of the Korean Substantival Nouns-*ha(ta)* Construction: Evidence for the Generative Lexicon." in eds., Akatsuka et al.. *Japanese/Korean Linguistics* 10. CSLI, Stanford.
- Lee, Chungmin and Im, Seohyun. 2003. "How to Combine the Verb *ha-*'do' with an Entity Type Noun in Korean - Its Cross-Linguistic Implications," in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Workshop on Generative Approaches to the Lexicon. Geneva. Swiss.
- Peeters, B. 2000. *The Lexicon-Encyclopedia Interface*. Elsevier Press.
- Pustejovsky, J. 2001. "Type Construction and the Logic of Concepts," in eds., Bouillon, P. & F. Busa. *The Language of Word Meaning*. Cambridge Univ. Press.
- Pustejovsky, J. 1995. *Generative Lexicon*. The MIT Press.
- Pustejovsky, J & P. Bouillon. 1996. "Aspectual Coercion and Logical Polysemy," in eds., Pustejovsky, J. & B. Boguraev. *Lexical Semantics: the Problem of Polysemy*. Clarendon Press. Oxford. London. U. K.
- Reboul, A. 2000. Words, Concepts, Mental Representations and Other Biological Categories. in ed. B. Peeters. *The Lexicon-Encyclopedia Interface*. Elsevier.
- Ross, J. R. 1972. "ACT," in eds., Davidson, D. & G. Harman.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70-126.